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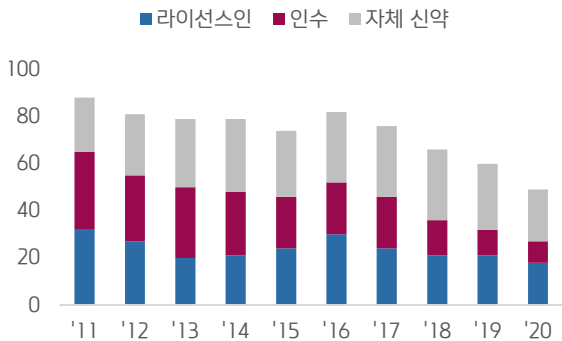
제약바이오 Analyst 허혜민

02)3787-4912, hyemin@kiwoom.com

## 파트너십, 후기단계보다 초기단계가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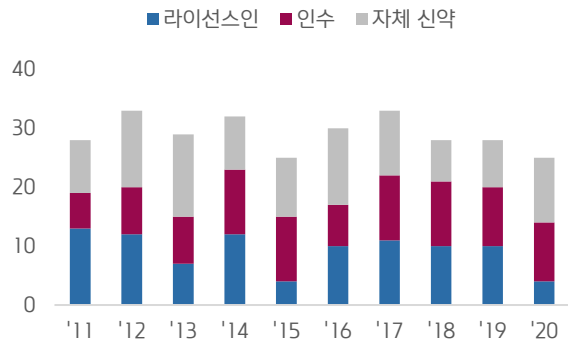
최근 해외 빅파마의 후기 파이프라인 수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인수와 라이선스인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의 수도 감소 중.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 제한 영향, CEO 교체, 바이오텍의 수월한 자금조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금액 부담이 적은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이 후기 단계보다 기술수출하기 더 수월한 상황일 것으로 추측.

빅파마 3상 신약 파이프라인 수 추이



주: 11개 글로벌 주요 다국적제약사의 3상 프로젝트 수. 매년 4월 집계 기준  
자료: Evaluat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중견 기업 3상 신약 파이프라인 수 추이



주: 해당 기간 시가총액 \$30bn 이상 업체의 3상 프로젝트 수. 4월 집계 기준  
자료: Evaluat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빅파마, 후기 단계 혁신 파이프라인 도입 감소

-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 영향**으로 인수와 라이선스 인 뿐만 아니라 빅파마 자체 후기 파이프라인도 감소.
  - Evaluate에 따르면, '16.4월 82개의 후기 혁신 프로젝트가 올해 같은 달 49개로 급락.
  - 대부분의 학회, 컨벤션 등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적극적이고 활발한 파트너십 기회 감소.
- >> 사노피, GSK 등과 같이 **매니지먼트(CEO 교체)**로 파이프라인 간소화.
  - 항암제 분야의 경우 **신규 제품 출시**보다 브랜드 항암제의 **적응증 확장**(예, 키트루다)에 집중.
- >> 바이오텍의 **자금조달이 비교적 쉬워** 기술수출 및 물질 매각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 상황도 영향 미쳤을 것.
- >> 단기적으로는 후기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보다 **초기 단계 부담 적은 금액의 기술수출이 더 쉬운 상황**으로 보임.
- >>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필요한 빅파마의 후기 파이프라인 도입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미국 헬스케어 지수 반등에 의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M&A 보다는 파트너십/기술도입이 활발할 것
  - 미국 대통령선거로 Mega M&A를 하기엔 불확실한 상황도 반영

#### Compliance Notice

---

- 당사는 6월 3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